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

Relationship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with Aggression among Korean Adolescents

---

박영란(Park, Young-ran)\*\* · 이주리(Lee, Ju-lie)\*\*\*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대상자는 전라남도 광양에 위치한 고등학교 1, 2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06명(남자 150명, 여자 156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안정성 척도, 공격성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자아존중감 안정성은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불안정할수록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 성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안정성, 공격성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지원에 의한 것임

\*\* 제1저자: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석사과정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아동복지전공 정교수, (julie@ca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는 모두 공격성을 잠재하고 있으며, 이를 제어하는 데는 올바른 자아 및 본인 스스로의 제어가 필요하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서서히 학습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공격성을 쉽게 참지 못하고 올바르게 못한 방향으로 발산시키며, 스스로 공격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행동의 사리분별을 파악하기 어렵다. 공격성은 개인의 여러 기질중의 한 부분으로서 어떠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Baron & Recharadson 1994: 7).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이미 마스크와 방송 매체 등에 의해 다수 보도 되었으며, 이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아존중감은 공격성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며, 선행 연구들은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상관성을 보고하고 있다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Buss 와 Perry(1992)는 분노와 적의성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밝힌 국내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이 우울증, 학교생활의 부적응, 폭력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다(백혜정, 황혜정, 김현희, 2005; 심희옥, 1998; 양종국, 김충기, 2002; 최은영, 최인령, 2002).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의 원인이라고 밝힌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상적 행동으로 공격 행동을 표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Schoenfeld, 1988; Toch, 1969).

그러나 이런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대화된 자아존중감이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Baumeister 등(2003)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경우,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협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더 쉽게 인지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협은 분노를 자극할 가능성이 더 많다(Averill, 1982). 또한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보다 상처 입은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Crocker, McGraw, Thompson 와 Ingerman(1987)은 높은 자아

존중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위협받으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들보다 외부집단의 구성원을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했다.

Baumeister, Smart 과 Boden (1996)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공격성향이 강해지게 된다는 ‘위협받는 자아본위 이론’을 제시 하였다. 이 이론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불안정한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자아존중감 안정성은 자아존중감 수준과 구별되는 범주로(Roberts, Shapiro, & Gambler, 1999), 단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자아존중감의 변화이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불안정한 사람은 외부 자극에 대해 쉽게 위협받고 손상을 입기 쉬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에 대한 이미지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더 예민하고(Kugle, Clements, & Powell, 1983; Turner, 1968) 위협으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 적대적인 방식인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이 불안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Tevendale, Dubois, Lopes 와 Prindville(1997)는 자아존중감의 불안정성은 적응상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Kernis, Cornell, Sun, Berry 와 Harlow(199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불안정성이 자아존중감 수준과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행복의 다양한 척도들과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Gable & Nezlek, 1998).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osenberg(1989)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불안정성은 불안, 우울, 적대감, 공격성과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불안정 할수록 적응의 정도도 좋지 않았다.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연구들은 비교적 그 역사가 오래 되었다. 초기의 연구들(Maccoby & Jacklin, 1974; Wylie, 1979)은 자아개념 전체 혹은 합계에서의 차이로 성차를 분석하였으며 거기에서는 성차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Feingold(1994)가 그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meta-analyses)하여 비교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성격 변인에서 .10 내지 .16의 유의 수준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의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성별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에, 국내 연구들의 대부분은 확연한 성차를 보고하고 있는데, 신체능력과 운동능력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었다(한종혜, 1996). 이진화와 전경숙(1995)은 전체적 자아존중감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연구는 소수가 발견되는데

한중혜(1996)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국의 논문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자아안정성과 공격성에 관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Webster, G. D. et al., 2007; Kernis, M. H. et al., 1989)가 있었으나, 국내연구에서는 결혼자녀나 학대, 학업성취 및 부모의 학력 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만이 있었고, 이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해서 밝힌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발달연구를 위한 유용한 구성요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밝힐 것이며, 또한, 단순히 자아존중감과 공격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둘 것이다. 최근 들어 중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자아존중감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청소년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대한 적절함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의의를 두고자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안정성은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안정성은 공격성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낼 것인가?
-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 자아존중감의 안정성과 성의 상호작용은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낼 것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 순천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청소년 후기의 집단으로 자기 인지 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히 평가와 자기 평정 질문지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으로 시행되었다.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남자가 49%, 여자가 51%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만15세가 10.1%, 만16세가 89.9%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별로 고등학교 졸업이 63.4%, 전문대 졸업이 5.2%, 대학교 졸업이 25.5%, 대학원 졸업이 5.2%, 기타가 0.7%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별로 중학교 졸업이 11.4%, 고등학교 졸업이 54.2%, 전문대 졸업이 5.6%, 대학교 졸업이 25.2%, 대학원 졸업이 3.3%, 기타가 0.3%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직업별로 전문직이 3.3%, 사무직이 86.6%, 판매직이 1%, 생산직이 8.5%, 주부, 무직, 실직이 0.3%, 기타가 0.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별로 전문직이 10.8%, 사무직이 24.5%, 판매직이 6.5%, 생산직이 2.3%, 주부, 무직, 실직이 48%, 기타가 7.8%로 나타났으며, 한달 평균 수입별로 100만원 미만이 0.3%,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5.6%,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9.2%,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9.6%, 4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3.4%, 500만 원 이상이 21.9%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안정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자아존중감 Self-Esteem Scale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여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다. 척도는 일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가했다. 한국판번안 척도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는 .84이다.

### 2) 자아존중감 안정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측정을 측정하기 위해 단일시행으로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을 측정 가능한 척도로 Rosenberg(1979)의 자기-안정성 척도(Stability of Self Scale : SSS)를 양현정(200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안정성 척도는 피험자 스스로 자기 이미지의 안정성을 평가하며(Wright, 2001),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양현정(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는 .67이다.

### 3)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Durkee(1957)가 제작한 BDHI(Buss-Durkey Hostility Inventory)를 노안녕(1983)이 번안하여 수정한 검사지를 한세리(2007)가 신체적 공격성, 적의성, 언어적 공격성·의심, 본위의 4개의 하위영역, 총21문항으로 재수정한 척도를 사용했다. 각 문항의 형식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정했다.

한세리가 보고한 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각 영역별로 .73~.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계수는 .85이다.

## 4. 자료분석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 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안정성이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 과 공격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과 표준편차분포

연구에 사용된 개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분포를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3.51±0.61점,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2.96±0.49점, 신체적 공격성이 2.55±0.76점, 적의성이 2.3±0.73점, 언어적 공격성이 2.09±0.69점, 분노가 2.14±0.73점, 공격성이 2.27±0.58점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평균과 표준편차분포

|           | N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자아존중감     | 306 | 1.5 | 5    | 3.51 | 0.61 |
| 자아존중감 안정성 | 306 | 1.2 | 4    | 2.96 | 0.49 |
| 신체적 공격성   | 306 | 1   | 5    | 2.55 | 0.76 |
| 적의성       | 306 | 1   | 5    | 2.30 | 0.73 |
| 언어적 공격성   | 306 | 1   | 4.33 | 2.09 | 0.69 |
| 분노        | 306 | 1   | 5    | 2.14 | 0.73 |
| 공격성       | 306 | 1   | 4.15 | 2.27 | 0.58 |

##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안정성의 성에 따른 차이분석

자아존중감 수준의 경우 남자와 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t=0.79, p>.05$ ). 자아존중감 수준의 항목의 평균에서 남자가 3.54±0.64점, 여자가 3.49±0.59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가 비슷한 자아존중감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경우 남자와 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t=-2.109, p<.05$ ).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항목의 평균에서 남자가 2.91±0.51점, 여자가 3.02±0.4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아존중감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뜻한다.

<표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안정성 성에 따른 차이분석 독립표본 t-test

|           | 1. 성별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유의확률   |
|-----------|-------|-----|------|------|--------|--------|
| 자아존중감 수준  | 남자    | 150 | 3.54 | 0.64 | 0.79   | 0.43   |
|           | 여자    | 156 | 3.49 | 0.59 |        |        |
| 자아존중감 안정성 | 남자    | 150 | 2.91 | 0.51 | -2.109 | 0.036* |
|           | 여자    | 156 | 3.02 | 0.45 |        |        |

\* $p<.05$

### 3.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상관분석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개념들 사이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 ( $r=.242, p<.01$ ), 자아존중감 수준과 적의성 ( $r=-.204, p<.01$ ), 자아존중감 수준과 분노 ( $r=-.153, p<.01$ ), 자아존중감 수준과 공격성 ( $r=-.124,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 개념들 사이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안정성과 신체적 공격성 ( $r=-.150, p<.01$ ), 자아존중감안정성과 언어적 공격성 ( $r=-.212, p<.01$ ), 자아존중감안정성과 분노 ( $r=-.223, p<.01$ ), 자아존중감안정성과 공격성 ( $r=-.285, 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 안정성, 자아존중감 수준과 공격성 개념들 사이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그 외의 항목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은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항목들은 어느 한쪽이 높아지면 다른 한쪽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              | 자아존중감<br>수준 | 자아존중감<br>안정성 | 신체적<br>공격성 | 적의성      | 언어적<br>공격성 | 분노       | 공격성 |
|--------------|-------------|--------------|------------|----------|------------|----------|-----|
| 자아존중감<br>수준  | 1           |              |            |          |            |          |     |
| 자아존중감<br>안정성 | .242(**)    | 1            |            |          |            |          |     |
| 신체적<br>공격성   | -0.041      | -.150(**)    | 1          |          |            |          |     |
| 적의성          | -.204(**)   | -.320(**)    | .366(**)   | 1        |            |          |     |
| 언어적<br>공격성   | 0.01        | -.212(**)    | .488(**)   | .434(**) | 1          |          |     |
| 분노           | -.153(**)   | -.223(**)    | .690(**)   | .523(**) | .508(**)   | 1        |     |
| 공격성          | -.124(*)    | -.285(**)    | .810(**)   | .734(**) | .759(**)   | .862(**) | 1   |

\*\*p<.01, \*p<.05



#### 4.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 자아존중감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아존중감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015$ ,  $F=4.729$ ,  $p<.05$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95% 신뢰수준에서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beta=-0.124$ ,  $p<.05$ )

<표 4-1> 자아존중감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단순회귀분석

| 모<br>형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br>계수   | t          | 유의확률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1      | (상수)     | 2.48         | 0.102       | 24.227     | 0.000  |       |
|        | 자아존중감 수준 | -0.143       | 0.066       | -0.124     | -2.175 | 0.03* |
|        |          | $R^2=.015$ , | $F=4.729$ , | $p=.030^*$ |        |       |

종속변수: 공격성

\* $p<.05$

##### 2)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 $R^2=.085$ ,  $F=14.01$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 안정성( $\beta=-0.271$ ,  $p<.001$ )이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아존중감( $\beta=-0.058$ ,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 모형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    | (상수)      | 3.325                          | 0.202 |           | 16.436 | 0.000    |
| 1  | 자아존중감 수준  | -0.067                         | 0.065 | -0.058    | -1.026 | 0.306    |
|    | 자아존중감 안정성 | -0.323                         | 0.067 | -0.271    | -4.791 | 0.000*** |
|    |           | R <sup>2</sup> =.085, F=14.01, |       | p=.000*** |        |          |

\*종속변수: 공격성

\*\*\*p<.001

3)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R<sup>2</sup>=.01, F=6.681, p<.001)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beta = -0.213$ , p<.05) 성별의 경우는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성별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하였다.

<표 4-3>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 모형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공선성 통계량 |        |
|----|--------------|---------|-------------------------------|--------|-----------|--------|---------|--------|
|    |              | B       | 표준오차                          | 베타     |           |        | 공차한계    | VIF    |
|    | (상수)         | 3.117   | 0.31                          |        | 10.053    | 0.000  |         |        |
| 1  | 성별           | 0.152   | 0.459                         | 0.131  | 0.33      | 0.741  | 0.019   | 52.755 |
|    | 자아존중감 수준     | -0.109  | 0.078                         | -0.094 | -1.4      | 0.162  | 0.662   | 1.511  |
|    | 자아존중감 안정성    | -0.254  | 0.1                           | -0.213 | -2.545    | 0.011* | 0.428   | 2.336  |
|    | 성별*자아존중감 수준  | 0.086   | 0.089                         | 0.273  | 0.967     | 0.334  | 0.038   | 26.532 |
|    | 성별*자아존중감 안정성 | -0.112  | 0.136                         | -0.291 | -0.826    | 0.409  | 0.024   | 41.325 |
|    |              |         | R <sup>2</sup> =.01, F=6.681, |        | p=.000*** |        |         |        |

\*\*\*p<.001, \*p<.05

4)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 작용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다중공선성이 있는 성별\*자아존중감 수준, 성별\*자아존중감 수준 안정감 등의 상호작용변수를 제거하고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 변수들의 작용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하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096$ ,  $F=10.715$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beta=-0.258$ ,  $p<.001$ ) 성별은 95% 신뢰수준에서 임계치에 위치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높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beta=0.108$ ,  $p=.05$ )

<표 4-4>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작용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 모형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br>베타 | t            | 유의확률        | 공선성 통계량  |       |       |
|------|-----------|--------------|--------------|--------------|-------------|----------|-------|-------|
|      | B         | 표준 오차        |              |              |             | 공차       | VIF   |       |
| (상수) | 3.221     | 0.208        |              | 15.465       | 0.000       |          |       |       |
| 1    | 성별        | 0.125        | 0.064        | 0.108        | 1.965       | 0.05     | 0.985 | 1.015 |
|      | 자아존중감 수준  | -0.071       | 0.065        | -0.061       | -1.088      | 0.278    | 0.941 | 1.063 |
|      | 자아존중감 안정성 | -0.307       | 0.068        | -0.258       | -4.534      | 0.000*** | 0.927 | 1.079 |
|      |           | $R^2=.096$ , |              | $F=10.715$ , | $p=.000***$ |          |       |       |

\*종속변수: 공격성

\*\*\* :  $p<.001$

5)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서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가 재확인되었다.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표 4-5>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                 | 모델1    |        |          | 모델2    |        |          | 모델3    |        |          |
|-----------------|--------|--------|----------|--------|--------|----------|--------|--------|----------|
|                 | 베타     | t      | 유의<br>확률 | 베타     | t      | 유의<br>확률 | 베타     | t      | 유의<br>확률 |
| (상수)            |        | 24.089 | 0.000    | 16.176 | 0.000  |          | 4.68   | 0.000  |          |
| 성별              | -0.139 | -2.453 | 0.015*   | -0.108 | -1.965 | 0.05     | -0.131 | -0.33  | 0.741    |
| 자아존중감<br>수준     |        |        |          | -0.061 | -1.088 | 0.278    | -0.094 | -1.4   | 0.162    |
| 자아존중감<br>안정성    |        |        |          | -0.258 | -4.534 | 0.000*** | -0.213 | -2.545 | 0.011*   |
| 성별*자아존중감<br>수준  |        |        |          |        |        |          | 0.273  | 0.967  | 0.334    |
| 성별*자아존중감<br>안정성 |        |        |          |        |        |          | -0.291 | -0.826 | 0.409    |

\*\*\*p<.001, \*p<.05

(1)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들에 대한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세 변수가 공격성 하위항목에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공격성의 회귀식은 ( $R^2=.096$ ,  $F=10.715$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성별이 신체적 공격성에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beta=0.226$ ,  $p<.001$ ), 자아존중감 안정성( $\beta=-0.121$ ,  $p<.05$ )이 신체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의성의 회귀식은( $R^2=.127$ ,  $F=14.644$ ,  $p<.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중감 수준이 적의성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beta=-0.132$ ,  $p<.05$ ),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적의성에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beta=-0.299$ ,  $p<.001$ )

언어적 공격성의 회귀식은( $R^2=.056$ ,  $F=5.957$ ,  $p<.01$ )로 99% 신뢰수준에서 언어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중감안정성이 99.9% 신뢰수준에서 언어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beta = -0.216, p < .001$ )

분노의 회귀식은( $R^2 = .073, F = 7.902, p < .001$ )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자아존중감 수준이 95% 신뢰수준에서 분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beta = -0.108, p < .05$ ),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95% 신뢰수준에서 분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beta = -0.184, p < .05$ )

<표4-5-1>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

| 모형   |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유의확률     | 공선성 통계량 |       |
|--|-----------|---------|-------|--------|--------|----------|---------|-------|
|  |           | B       | 표준 오차 | 베타     |        |          | 공차 한계   | VIF   |
| 신체적 공격성  | (상수)      | 2.971   | 0.278 |        | 10.677 | 0.000    |         |       |
|  | 성별        | 0.344   | 0.085 | 0.226  | 4.046  | 0.000*** | 0.985   | 1.015 |
|  | 자아존중감 수준  | -0.017  | 0.087 | -0.011 | -0.199 | 0.843    | 0.941   | 1.063 |
|  | 자아존중감 안정성 | -0.189  | 0.09  | -0.121 | -2.095 | 0.037*   | 0.927   | 1.079 |
| 적의성  | (상수)      | 3.988   | 0.26  |        | 15.324 | 0.000    |         |       |
|  | 성별        | -0.126  | 0.08  | -0.086 | -1.586 | 0.114    | 0.985   | 1.015 |
|  | 자아존중감 수준  | -0.194  | 0.081 | -0.132 | -2.383 | 0.018*   | 0.941   | 1.063 |
|  | 자아존중감 안정성 | -0.452  | 0.084 | -0.299 | -5.351 | 0.000*** | 0.927   | 1.079 |
| 언어적 공격성  | (상수)      | 2.816   | 0.255 |        | 11.044 | 0.000    |         |       |
|  | 성별        | 0.118   | 0.078 | 0.085  | 1.513  | 0.131    | 0.985   | 1.015 |
|  | 자아존중감 수준  | 0.086   | 0.08  | 0.062  | 1.077  | 0.282    | 0.941   | 1.063 |
|  | 자아존중감 안정성 | -0.309  | 0.083 | -0.216 | -3.726 | 0.000*** | 0.927   | 1.079 |
| 분노   | (상수)      | 3.108   | 0.267 |        | 11.659 | 0.000    |         |       |
|  | 성별        | 0.164   | 0.081 | 0.113  | 2.017  | 0.045*   | 0.985   | 1.015 |
|  | 자아존중감 수준  | -0.158  | 0.083 | -0.108 | -1.896 | 0.059    | 0.941   | 1.063 |
|  | 자아존중감 안정성 | -0.276  | 0.087 | -0.184 | -3.193 | 0.002**  | 0.927   | 1.079 |
| R <sup>2</sup> = .096, F = 10.715, p = .000*** |           |         |       |        |        |          |         |       |

\*\*\*p < .001, \*p < .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공격성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아존중감 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 공격성 개념들 사이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Kernis 등(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은 형질이 유사함을 암시한다(Neiss, Sedikides & Stevenson, 2006).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타나냈는데 이는 불안정성이 분노 및 적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Kernis, et al., 1989).

셋째, 자아존중감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수준이 공격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uss et al., 1992).

넷째,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자아존중감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ernis 등 (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며 자아존중감 수준은 자아존중감 안정성을 매개로 해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경우는 다중공선

성이 발생하여 성별의 상호작용을 제외하고 다시 분석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 작용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제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성별은 유의도 임계치에 위치하였다.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높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남자는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공격성이 더 용인되기 때문에 남성의 공격성이 여성의 공격성보다 표출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여섯째,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의 개별 작용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적공격성에 성별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의성에는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공격성에는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분노에는 자아존중감 수준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성별이 공격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서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가 재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자아존중감 안정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성별로 보면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아존중감 안정성이 공격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집 지역, 표집연력, 표집시기의 한정성과 관련한 제한점을 지니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집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심리 내적인 변인이 변환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종단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자아존중감 수준, 자아존중감 안정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 도구들이 자기 보고형 측정 도구로써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정한 결과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교사, 부모, 또래 평정과 같은 다각적인 각도에서 변인을 측정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 안정성을 측정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일 시행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복측정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영향을 더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반복측정과 단일 측정을 통해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노안녕 (1983). 非行靑少年에 있어서 攻擊性과 不安의 減少에 미치는 主張訓練의 效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 황혜정, 김현희 (2005).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심희옥 (1998).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양종국, 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 101-121.
- 양현정(2002).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 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4.
- 이훈진, 원호택(1995). 자기개발과 편집증적 경향. **心理科學**, 4(2), 15-29.
- 최은영, 최인령(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한세리(2007). 남녀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 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aron, R. A. and Richardson, D. (1994). *Human Aggression* (2nd ed.). New York: Plenum.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s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26 - 29.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 - 44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52-460.
- Crain, R. M.(1996). The influence of age, race, and gender on child and adolescent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In B.A. Bracken (Ed.), *Handbook of self-concept: Developmental, social, and clinical considerations*(pp. 395-420). New York: Wiley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 328 - 335.
- Feingold, A.(1994). Gender differences in persin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29-456
- Kernis, M. H., Cornell, D. P., Sun, C.R.,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90-1204.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13 - 1022.
- Maccoby, E. E, & Jacklin, C. N.(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Neiss, M. B., Sedikides, C., & Stevenson, J. (2006). Genetic influences on level and stability of self-esteem. *Self and Identity*, 5, 247 - 266.
- Roberts, J. E, Shapiro, A. M., & Gambler, S. A. (1999). Level and perceived stability of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 depressive symptoms during psychoeducational group treatment. *Brith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4), 425-42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development of the self*, Academic Press.

- Schoenfeld, C. G. (1988). Blacks and violent crime: A psychoanalytically oriented analysis. *Journal of Psychiatry and Law*, 16, 269-301.
- Tevendale H. D., DuBois D. L., Lopez C., & Prindiville, S. L. (1997). Self-Esteem Stability and Early Adolescent Adjustment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2), 216-237.
- Toch, H. (1969). *Violent men: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violence*. Chicago, IL : Adline publishing.
- Watkin, D.(1978).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lf-esteem measuring instru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44, 171-182.
- Webster, G. D. , Kirkpatrick, L. A. , Nezelek, J. B. , Smith, C. V., & Paddock, E. L. (2007). Different slopes for different folks: Self-esteem instability and gender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ttitudinal aggression. *Self and Identity*, 6(1), 74-94.
- Wylie. (1979). *The Self-concept (vol 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 of stability and aggression and level of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The participants were 306 highschool students in Suncheon, South Jeolla province, including 150 male students and 156 female students. Each participants completed a package of survey by questionnaire for Self-esteem scale, and stability and aggression scale.

Followed are the major results; First,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elf-esteem, bu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girls were higher than boys in the stability of self-esteem. Second, the lower level of self esteem and the unstability adolescents had, the higher aggression they had. Third, Third, aggression of self-esteem was affected by self-esteem, and the relations between stability of self-esteem and gender.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that the verification of relations of stability and aggression helps self-esteem development for adolescents understand.

**Key Words** : Self esteem, Aggression, Adolescent